

# 임시 총학, 14대 총학과 전학대회로

상반기 전학대회 결정…6일 임시전학서 운영방안 논의키로  
동연회장 김민성 학우(원자 97), 전학대회 의장 선출

올 한해 동안 제 14대 총학 집행부 및 2000년도 전학대회 대의원이 임시체계를 구성해 총학을 대신하게 된다.

지난 달 29일 학생회관 3층 음악감상실에서 열린 2000년도 상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의 결정에 따라 올 해 동안 부재증인 총학을 대신해 임시체계구성원이 학생회 일을 꾸려나가게 되었다. 임시체계는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위원이나 전학대회 대의원, 14대 총학생회 위원들 중 한 팀이 맡기로 되어 있었는데, 전학대회 대의원들이 총학 운영 경험이 부족해 작년에 학생회 운영 경험 있는 14대 총학생회와 함께 임시체계를 꾸리게 되었다.

그러나 전학대회 대의원들의 참여율이 50%밖에 되지 않아 임시 전학대회를 열어 임시체계의 명칭 및 운영방법 등을 결

정하기로 했다. 임시체계는 앞으로 최소한의 학생회 골격은 유지하며 대동제, 체육대회 등의 학내 행사를 주관하고, 내년 총학 선거를 준비하게 된다.

2000년도 전학대회 의장으로는 동아리 연합회 회장과 원자력 공학과 과대표를 맡고 있는 97학번 김민성 학우가 선출되었다.

한편 이번 전학대회에서는 성평등위원회, 생준위 등 학생단체단체장 인준, 99년도 하반기 사업, 예산보고 및 2000년도 상반기 사업, 예산보고 등도 이뤄졌다. 또한 특별안건으로 학생회 임시체계구성을 비롯하여 신입생 반 폐지문제, 임시체계에 대한 학생회칙 추가 문제, 성평등위원회 지원금 인상보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2000학번 새내기들의 반 폐지 문

제에 대해 전학대회 대의원들은 학생회칙 상에 명백하게 나타난 학우들의 조직체계인 '반'을 없앤 점과 사전에 학우들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를 결정한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중운위에서 항의문 초안을 작성하기로 결정했으며 대응주체나 항의문 완결안에 대해서는 임시 전학대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학생회칙 제 68조에 '재선거시 후보 미등록' 안을 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했다. 학생회칙 추가사항은 전학대회 의장이 3일 이내에 학우들에게 공고를 하고 공고일로부터 7일후 임시 전학대회에서 추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각 자치단체들의 예산 관리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교지편집위원회의 경우 전학대회 위원들의 동의 없이 북한동포돕기기금 15만원을 지출했으며, 다른 자치단체들도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자치단체들의 예산운영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이 드러났다.

신지은 기자 snowwhite@kaist.ac.kr

계란 낙하 대회  
송홍익 학우(토목 96)우승

지난 31일 우리 학교 정보공학동 6구간 옥상에서 '계란 낙하 대회'가 열렸다.

드라마 '카이스트' 촬영을 위해 실시한 이번 대회는 6층 건물 옥상에서 깨지지 않게 장치한 계란을 떨어뜨린 후, 안 깨진 계란 중 가장 빨리 떨어진 것을 제작한 사람 순으로 등위를 매겼다.

이번 행사에서 낙하시간 1분 17초로 가장 빨리 계란을 떨어뜨린 96학번 송홍익 학우는 50만원 상당의 오디오 세트를 상품으로 받았으며, 2등에게는 25인치 칼라 텔레비전이 3등에게는 mp3 player가 각각 주어졌다.

한편, 이번 대회는 학우들로부터 드라마 '카이스트'를 위해 즐속으로 기획된 행사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대회에 참가했던 학우들은 계란을 넣는 기구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재료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장치의 무게도 규제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낙하 방법도 자유 낙하가 아니라 초속도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도록 대회를 진행해 팔힘이 선 사람에게 유리한 대회가 아니었느냐는 지적도 있었다.

신지은 기자 snowwhite@kaist.ac.kr

동연, 1년 공백 깨고 출범  
회장 김민성 학우(원자 97)

지난 27일 1년간의 공백기간을 마감하고 제9대 동아리 연합회가 구성됐다. 동아리 연합회 회장은 97학번 김민성 학우가, 부회장은 99학번 전강민 학우가 각각 맡았다.

이번 동아리 연합회 회장단 선거는 지난 23일까지 재선거 후보자 등록을 받기로 했으나 등록한 후보가 없어서 재선거가 무산되었다.

그러나 후보 등록 마감일 다음날인 24일 김민성 학우와 전강민 학우가 동연 회장 및 부회장에 지원을 해 27일 동아리 대표자 투표를 한 결과 총 투표 수 35표 중 33표의 찬성을 얻어 동연 회장 및 부회장으로 당선되었다.

김민성 학우는 "요즘 각 자치단체들의 운영이 어려운데 동연 회장이 되어 자치 단체를 활성화 시키고자 회장에 출마했다"며 "동연이 1년간의 공백기간이 있어서 그 동안 동아리간의 교류가 부진했으나 올해엔 동아리들이 잘 연합해서 대동제 등의 행사를 잘 치렀으면 좋겠다"고 했다.

신지은 기자 snowwhite@kaist.ac.kr



"Nothing moves without Mechanical Enginee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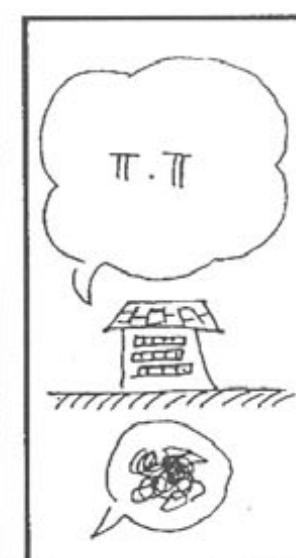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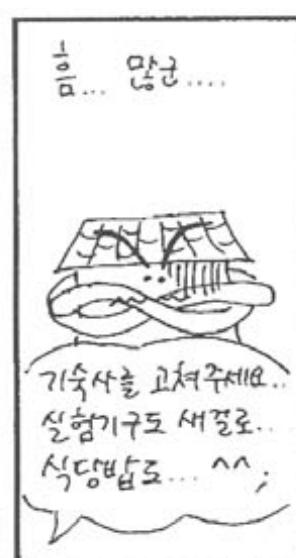
지난 달 24일 '드라마 카이스트의 추자현과 함께보는 기계공학과' 행사가 열렸다.

150여 명의 학우들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 '카이스트'에서 기계공학과 학생으로 열연하고 있는 추자현이 '진

정한 기계공학과의 모습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교수들과 대담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많은 학우들에게 기계공학과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길환 기자 yeokilay@kaist.ac.kr



'바다사나이' 2년 연속  
둘리배 농구대회 우승

지난 31일 벌어졌던 둘리배 농구대회 결승 경기에서 부산 과학고 동문팀인 '바다사나이'가 우승을 차지하였다.

'바다사나이'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승의 영광을 얻었으며, 농구 친목 동호회인 'The Team'은 준우승을 차지하였다. 최우수 선수 타이틀은 비록 팀은 패했지만 결승전에서 31득점 28리바운드의 기록을 세운 'The Team'의 김경수 선수에게 돌아갔다. 우승 상금과 준우승 상금은 각각 15만원, 10만원이며 최우수 선수는 5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ara/Sportseven 계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병욱 기자 agev@kaist.ac.kr

'카이스트' 작가 송지나씨

'송지나의 카이스트' 출간



송지나의  
카이스트

드라마 '카이스트'의 작가 송지나씨가 '송지나의 카이스트'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동아일보사에서 발간한 이 책은 송지나씨가 드라마 '카이스트'를 시작하게 된 동기.

출연 연예인들의 재미있는 뒷이야기, 송지나씨가 예견하는 우리 학교의 10년 후 모습 등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시청자들이 드라마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흥미로운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다.

이호열 기자 mgc2510@kaist.ac.kr